



박물관 소식지 제16호

특집

인천의 근대교육

리뷰

‘대련, 도시의 풍경’ 순회특별전
2012 인천문화예술대표인물 ‘석남 이경성’

기획연재

인천의 옛길 ④

박물관 Culture

소장유물 ‘유근성 송하전표’
인천, 도시탐사 ⑦

박물관 소식

송암미술관 기획특별전 출품자료
검단선사박물관 행사
박물관 소식 및 일정
마음 창에 시선 담기

2012년
겨울



인천의 근대교육

인천 근대 여성교육을 더듬어-개신교를 중심으로



제물포여자매일학교 교직원들. 왼쪽부터 강세실리아, 벵겔, 백헬렌



1918년 헤시(惠施, Margaret Isabell Hess) 교장 송별기념사진



영화여자학교 구제 제11회 졸업기념사진(1921.3.19)

인천 여성교육은 기독교 전래와 함께 시작되었다. 1892년 1월부터 서울 이화학당에서 성악을 가르쳤던 미북감리회 여선교사 마가렛 벵겔(Magaret J. Bengel)이 제물포 여성선교에 중점을 두고자 제물포 담당 선교사로 파송되었다. 배재학당 수학교사로 있던 조지 히버 존스(George Heber Jones)도 제물포 주재 선교사로 함께 파송되었다. 1890년 벵겔이 제물포에 혼자 입국했을 때 존스가 마중을 나와 서울로 안내한 것이 인연이 되어 연인으로 발전한 사이였다. 두 사람은 제물포 주재 선교사로 파송되면서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고, 1892년 5월 서울 정동에서 결혼하면서 부부선교사로 제물포에 상주하였다.

벵겔은 함께 내려온 전도부인 이경숙이 스크랜튼 대부인의 요청에 다시 서울 정동 선교본부로 올라갔다. 대신 황해도 곡산 출신 과부 백헬렌이 내려와 본격적인 제물포 여성선교를 시작하였다. 당시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로 서양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으로 직접선교에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 그래서 전도부인 백헬렌이 기발한 전도 전략을 세웠는데 그것은 바로 방물장수로 위장하는 것이었다. 여성들이 가정에서 필요한 물건을 아주 싸게 팔면서 인심을 얻었다. 그렇게 인심을 얻고 단골손님으로 만들어 절대적 신뢰를 갖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본래 목적인 전도를 하였는데 이러한 전도전략은 큰 힘을 발휘하여 남자선교를 능가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전도한 여성들은 먼저 벵겔 집으로 인도되어 강세실리아에게 한글을, 자신은 찬미가를 가르쳤다. 그 당시 여성들은 글자를 모르는 까막눈이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성경을 읽을 줄 알고 찬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엄마를 따라 온 아이들이 있었다. 그 아이들이 엄마보다 더 빨리 한글을 배웠고, 찬양도 더 잘 하였다.

벵겔은 아이들로부터 이런 사실을 발견하고 아이들만을 위한 교육선교를 구상하여 이를 즉각 실천하였다. 전도부인 강세실리아는 본처전도사 강재형의 아내로 나이가 어리고 몸이 약한 관계로 직접 전도에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이원체제를 구축하여 백헬렌이 전도한 여성들과 아이들을 교회로 인도하면 강세실리아가 교육을 전담하였다. 이것이 인천 근대 여성교육의 시작이다.

처음에는 여성과 아이들을 교육하였지만 여성교육과 아동교육을 분리하고 보다 체계화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제물포여자매일학교(Chemulpo Girl's Day School)의 시작이며 한국 최초의 매일학교가 되었다. 당시 남녀전용 예배당이 따로 있을 정도로 남녀유별이 엄격하게 지켜져서 먼저 여자매일학교가 설립되었다.

이어 1893년 5월 남자아동을 가르치는 제물포 남자매일학교(Chemulpo Boy's Day School)가 존스 목사에 의해 제물포용동교회(현 내리교회)





1937년 겨울 영화여자보통학교 전경



1962년 김활란 박사 모교방문 시 다락방 전달식 장면

안에 설립되었다. 학교는 제물포에서 조선인 아동만을 위한 인천 최초의 교육기관이 되었다.

제물포 남녀 매일학교에서 영화(永化)라는 정식 교명을 사용한 것은 1898년이다. 영화 70년사(永化 七十年史)에는 용동 학교 시절 한문교사 박용래가 처음 작명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나,

영화(永化)라는 교명은 영명(永明), 영세(永世), 영생(永生) 등과 함께 전국 각지 매일학교에서 사용한 흔한 교명이었다.

영화여자매일학교는 제물포 용동교회(내리교회) 여성전용 예배당 내에 있었다. 1900년 웨슬리에배당을 건축

하면서 임시예배당으로 우각리 에즈베리목사를 사용하였다. 이때 학교도 함께 이전하였다. 1901년 12월 용동 웨슬리에배당이 완공된 다음에도, 우각리 학교는 그대로 운영하였다. 용동과 우각리 두 개 여자매일학교를 운영한 것이다. 그러나 1902년 12월 갑자기 에즈베리에배당이 화재로 소각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우각리 학교도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을 때, 여선교사들은 밤샘 기도를 하면서 그동안 아동들이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였음을 회개하고,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위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모색하였다.

1903년 1월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들은 밀러 선교사의 고향 독일 칼스루헤교회에서 1,000달러를 지원하였다. 그래서 싸리재에 대지 120평을 매입하고 26평 적벽돌조 단층교사를 건축하였다. 그러면서 미여선교회 직영학교

로 지정하고 이화학당 부속학교가 되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서양근대 교육을 실시하였다. 학교명도 영화여자소학교로 개명하였다. 졸업생들 중 성적우수자는 이화학당에 입학하였고, 졸업 후에는 해외유학까지 가기도 하였다. 한국 최초로 해외유학을 하여 한국 최초로 정규 서양음악을 전공한 김애식(김엘리스)과 한국 최초의 여성박사 김활란이 이에 해당한다.

1909년 인천 여성교육의 메카로 각광을 받으면서 200명이 넘는 여자아이를 수용할 수 있는 우각리 학교부지를 매입하고자 하였다. 이때 미국 네브라스카 사업가 콜린스가 목재회사 수익 80%를 세계 각국 선교를 위해 사용하라는 선친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1,000달러 기부금을 보내주었다. 그래서 싸리재 학교 매각대금과 인천지역 여성신도들의 자발적인 헌금으로 우각리 42번지에 지하1층, 지상 3층, 연건평 212평의 최첨단의 교사를 건축하였다. 서은숙, 김애마, 김영의, 하복순 등이 우각리 교사에서 배출한 졸업생이다.

인천 근대 여성교육은 영화여자학교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것을 선도한 사람은 뱅겔이었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그릇된 인식을 가졌던 가부장제를 혁파하고 여성도 남성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수많은 한국 여성교육의 선구자를 배출하였다.

영화여자정보고등학교 이성진

우현 마당에서...

아이 학교 보내면서 학교 운동장이 넓지 않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내 머릿속 조희 서던 운동장은 엄청난 넓이였던 것 같은데... 요즘의 운동장은 뛰어놀기엔 좁은 공간이고 이 때문에 아이들이 약한 거라고 지레 짐작했건만 사십여 년만에 둘러본 내 학교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는 아름다운 것으로’, ‘제법 근사했던 것으로’ 자체 포장 작업을 조금 거쳤다지만 ‘나도 고만고만한 운동장에서 뛰어 놀았네’ 하는 생각이 든다. 신흥국민학교 31회 졸업생이니 올 6학년은 68회겠구나. 줄어들어 입을 수 없는 니트를 앞에 놓은 듯 작아져 버린 운동장을 보니 기억에 자신이 없다. 총알 하나까지 건져내 홍보용으로 활용되었다는 러일전쟁 잔해들은 내가 학교 다닐 때도 화단 한 구석을 지켰는지 생각이 나질 않는다. 그때는 있는지 없는지조차 관심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당시엔 마룻바닥 청소, 혼분식 검사하는 날 밥에 보리 심던 일, 해광사에서 긴담 모퉁이, 학교까지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조무래기들, 깃털 달린 모자 쓰고 시가지를 누비던 고적대라는 것이 있었다. 3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과학 실험실에 모여서 매년 자유 교양 책임기도 했다. 액

체 용액에 징그럽게 담겨있는 스산한 것들 속에서 운동부 수업 빼먹듯 수업을 들어가지 않고 공기놀이를 한 적도 있고, 학교 대표라고 모인 녀석들이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눈치껏 놀았던 적도 있다. 이 모든 것을 선생님은 아시지 않았을까. 지금처럼 추운, 조개탄 받아다 교실에 불 피울 계절이 돌아오면 팬스레 떠오르는 친구들도 여럿이다. 강바니라고 피부색 다른 친구도 있었고, 2학년 때 내가 한글 깨쳐준 승철이, 텔런트 황신혜, 기자로 잘 사는 녀석, 의사 선생님이 된 친구도 있었더라.

신작로 넓은 길가에 위치했던 신흥국민학교가 일본인들이 다닌 때부터가 아니라도 전통 깊은 학교인데, 꼬마 친구를 안고 지금도 그 자리에 있건만 중심축에서 비껴난 듯 한가롭다. 웬지 아쉬운 마음과 함께 애뜻함도 더해진다. 그래서일까.

보고 싶구나, 친구야!

박물관 자원봉사자 이진경

滄桑巨變

대련, 도시의 풍성



1924년 대련항 여객터미널



전시장 모습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전시는 중국 대련시를 주제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박물관에서 다른 나라의 특정 도시를 주제로 특별전을 개최한 경우는 거의 없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 때문인지 전시홍보 기사가 나가고 난 뒤 많은 사람들이 전시내용과 의도에 대해 궁금해 했다. 전시 내용에 대해서는 나름 설명을 할 수 있었지만 기획 의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이번 전시는 우리 박물관이 아니라 대련시 여순박물관(旅順博物館)에서 기획한 것이기 때문이다. 전시가 끝난 뒤 이번 전시에 대한 리뷰를 작성해 달라는 부탁, 아니 의무를 부여받았음에 난감함이 느껴지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전시에 대한 리뷰는 이번 전시가 개최된 배경과 의의를 정리하는 정도로만 해야 할 듯싶다.

인천광역시립박물관은 지난 2010년부터 중국 대련시 여순박물관, 일본 기타큐슈시 이노치노타비(いのちのたび)박물관과 함께 동아시아 우호박물관 교류협력 사업을 진행해 왔다. 박물관이 속한 3개 도시는 상호간 자매 및 우호도시로 오래전부터 교류를 이어왔는데 이를 바탕으로 도시를 대표하는 박물관 차원에서 전시와 연구 분야 등의 교류를 통해 역사와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이와 관련해 3개 박물관은 각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줄 수 있도록 매년 각 관에서 특별전을 차례로 기획한 뒤 순회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번 특별전이 바로 첫 번째 전시인 것이다.

따라서 이번 전시는 동아시아 우호박물관 간 교류협력이 갖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아울러 전시를 통해 그동안 우리에게는 그리 친숙하지 않았던 대련시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대련시의 도시 형성과 변화과정은 인천과 많은 점에서 닮아 있어 두 도시의 역사를 상호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요동반도 최남단에 자리 잡고 있는 대련시는 요령성(辽宁省)에서 심양(瀋陽)의 뒤를 잇는 제2의 도시로 대외무역항을 갖춘 중국 동북지방의 경제중심지이다. 이곳은 발해만에서 중국 동북 내륙지방을 연결하는 요충지에 해당되어 일찍이 외세의 영향을 받아왔다. 1898년 러시아의 조차지(租借地)가 되었고 1905년 러일전쟁 후에 일본의 강점하에 있었다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이 점거한 후 1951년 중국으로 반환되었다. 1990년대의 개혁개방 경제 아래 중국 동북부 내에서 눈부신 경제적 발전을 이루면서 2007년 현재 인구 608만명, 면적이 13,238km²에 이르는 대규모 도시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대련이 근대도시로 면모를 갖추게 된 것은 100여 년 전 외세에 의해 항구가 건설되면서부터였다. 항구가 생기면서 도시에는 다양한 문물이 유입되고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러면서 각종의 도시 시설이 들어서게 되었고 오늘날 대련의 밑그림이 그려진 것이다. 인천도 1883년 타의에 의해 한적했던 포구에 항구가 들어서게 되면서 서구 문물이 유입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무역과 상업도시로 변화해 갔던 모습이 대련과 많이 닮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시 제목에서 “창상거변(滄桑巨變)”은 대련과 인천의 도시 형성과 변화과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명칭이라고 하겠다.

전시교육과 이희인

1930년대 우호광장



행사 리뷰

아름다운 것은 모든 사람의 것이다.

2012 인천문화예술대표인물
석남 이경성을 추모하며



지난 11월 27일은 석남 이경성 선생의 타계 3주년 추모일이었다. 이날 인천문화재단과 인천광역시립박물관이 함께 이경성 선생을 추모하고 인천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인물로 재조명하는 특별행사와 추모전시를 개최했다. 인천대표인물조명사업은 인천을 대표하는 작고(作故) 문화예술인을 선정해 인물의 삶과 업적을 조명하는 행사로 인천시민의 문화적 자긍심과 정체감을 높이는 사업이다. 2005년 우현 고유섭, 2006년 검여 유희강, 2007년 현덕, 2008년 송암 박두성, 2010년 한하운에 이어 여섯 번째 인물로 석남 이경성을 선정했다. 올해 인천문화예술대표인물조명사업은 인천광역시립박물관이 협력하여 기획한 행사다.

석남 이경성 선생은 인천 출생으로 한국 최초의 미술평론가이자, 한국 근대미술사를 체계화하고 미술이론 분야를 개척한 미술사가다. 인천시립박물관 초대관장을 시작으로 국립현대미술관장까지 미술교육과 미술행정가로서 한국 미술계에 큰 공헌을 한 인물이다. 특히 인천시립박물관장 재직시절에는 인천에 흩어진 고적들을 학술조사 출장으로 답사한 후 『인천고적조사보고서』를 남겼다. 이번 대표인물조명사업의 성과 중 하나로 이 『인천고적조사보고서』 발간을 꼽을 수 있다. 기존의 출장보고서를 지역문화 자료로 다시 조명하여 인천문화재단의 지역문화 총서 시리즈인 《문화의窓》 9호로 발간한 것이다. 특히 이 『인천고적조사보고서』에는 석남 이경성 선생이 관계자들과 함께 고적을 실측하고, 도면 등을 직접 그려 남긴 내용들이 실려 있어 당시 인천 지역에 흩어져 있던 고적들과 각 지역 특색들을 살펴보는 주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 역시 시립박물관과 긴밀한 협조로 진행되어 그 성과가 더욱 뜻깊다. 『인천고적조사보고서』는 인천문화재단과 인천광역시립박물관 각각의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볼 수 있다.

11월 27일 오후 2시부터는 인천아트플랫폼 C동 공연장에서 특별행사가 열렸다. 〈석남 이경성 이야기, 인생과 美의 편력〉이라는 제목으로 개최된 이 특별행사는 기존의 학술 심포지엄들과 달리 시민 누구나 쉽게 인물을 이해하고 접할 수 있는 자리로 기획했다. 특히 ‘인생과 美의 편력’이라는 타이틀은 석남 이경성 선생의 자서전인 『어느 박물관장의 회상』(2009)에서 가져온 말이다. 〈이야기 1〉에서는 이경성 선생과 인천의 관계를 보여주는 ‘지역인 석남’을 조명했는데, 김양수(문학평론가)와 김윤식(시인)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특히 이경성 선생과 동연배의 인천 인물들이 이미 작고한 경우가 많아 관련 추억을 담아내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김양수의 또렷한 옛 기억과 김윤식의 재치있는 입담으로 인천에서 활동했던 석남 이경성을 친근하게 만나 볼 수 있었다. 〈이야기 2〉에서는 이경성 선생이 한평생 몸담았던 미술계의 시선을 만나보는 자리였다. 한국근대미술사학회회장 김현숙 교수(덕성여자대학교)와 미술평론가 윤진섭 교수(호남대학교)의 이야기로 미술이론가인 동시에 평론가로 활동했던 석남의 미술계 활동을 들어 보았다. 〈이야기 3〉은 앞서 이야기했던 총서 『인천고적조사보고서』의 내용을 일부 소개하는 자리였다.

특별행사가 끝나고 인천광역시립박물관으로 자리를 옮겨 추모 전시 〈李慶成, 그 사람〉의 개막행사가 진행되었다. 전시는 내년 1월 27일까지 석 달간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된다. 일생 미술계의 선구자로 사셨던 석남 이경성 선생의 많은 업적들을 모두 짚어보진 못했지만, 지역의 문화예술 기관 두 곳이 힘을 합해 인천을 사랑한 지역 문화예술인물로 재조명해 낸 뜻깊은 시간이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지역문화예술대표인물 석남 이경성 선생의 업적과 활동에 대한 이해가 보다 넓어지길 바란다.

인천문화재단 기획사업팀 박소현

인천의 옛길 ④

일제시대의 경인 신작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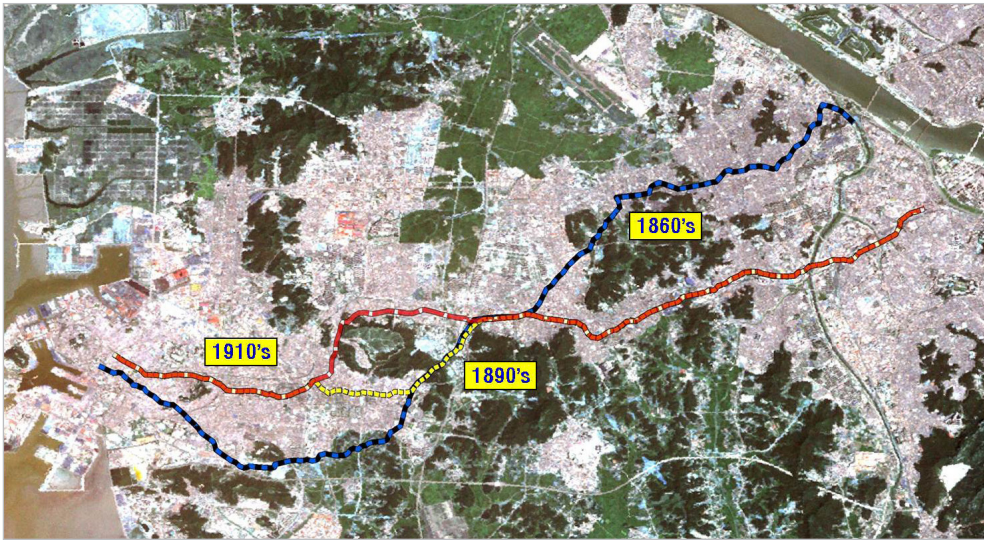


그림1. 노선의 변화 : 1860년대, 1890년대, 191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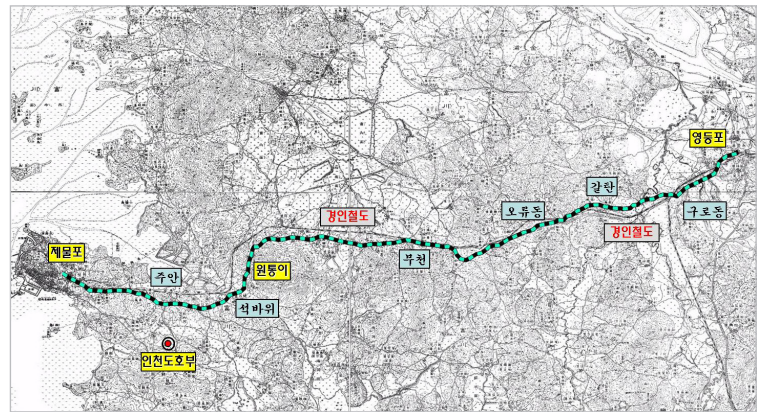


그림2. 1910년대 경인 신작로의 노선

일제는 조선을 합병하자마자 일본천황 칙령 361호(1910.9.30 공포, 동 10.1 시행)에 의거하여 조선총독부에 조선임시토지조사국을 설치하고 1915년까지 5년에 걸쳐 전국 220,762km²에 대한 토지 측량을 완료한다. 토지 측량과 함께 일제는 한국의 국토에 기선(基線) 13개소, 대삼각점 400처, 2등 삼각점 2,401처, 3등 삼각점 31,646처 등의 측량점을 설치하였고, 삼각점망이 완성된 1914년부터 1:50,000 지형도를 제작하기 시작하여 1918년에 완료하였다. 이 지형도가 일본과 한국에서 영인본으로 출판되어 일반인들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지형도의 범례는 점 기호 62종(관공서 및 각종 시설 등)과 선 기호 22종(행정경계 및 도로·철도망 등) 그리고 면 기호 33종 등 모두 117종으로 구성되었다. 면 기호에는 하천·교량·진도 등의 수부(水部) 기호 12종, 논·밭·수림(樹林)·사지(沙地)·니지(泥地) 등의 지류(地類) 기호 15종, 우열(雨裂)·붕토(崩土) 등의 지형 기호 6종 등이 있었다. 도로 기호는 1등도로·2등도로·달로(達路)·연로(聯路)·간로(間路)·소로(小路) 등 여섯 단계로 등급을 분류하였다. 1등·2등도로·달로는 굵기와 간격이 다른 두 줄의 실선으로, 연로는 하나의 실선과 하나의 점선으로, 간로는 두 줄 점선으로, 소로는 한 줄 점선으로 표시된다. 이로부터 당시 전국 단위의 간선도로와 지역 단위의 간선도로를 구분할 수 있다.

개항 이후 경인로(1890년대)와 1910년대 경인신작로 중에서 경로가 다른 구간은 석바위부터 송내까지이다(그림1). 이 변화는 한남정맥을

통과하는 지점을 바꾼 것에서 비롯되었다. 조선시대 대대로 성현을 경유하던 경인로 노선이 1910년대에 1등도로로 정비되는 과정에서 만월산과 철마산 사이의 원통이고개(인천시 남동구 간석3동)를 넘는 길로 옮겨간 것이다. 원래의 노선보다는 돌아가는 길이지만 신작로는 낮은 고개를 선택하였다. 원통이고개(50m)는 성현(120m)보다 해발고도가 낮을뿐더러 고개 정상부의 경사도 훨씬 완만하다. 원통이고개길 노선은 앞서 얘기한 전통시대 노선 획정의 원리인 최단거리 원칙에서 벗어난 셈이다. 그러나 이 변화는 전근대의 도보단계에서 근대적 철도단계로 접어든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다.

철도의 노선획정에는 연로선변의 인구규모와 함께 지형적인 요인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철도는 레일 위에서 운행하는 까닭에 일반 도로처럼 급커브길을 낼 수 없고, 기울기(수평이동거리 대비 수직이동거리)도 0.1%(1,000m 당 1m)를 넘기 어렵다. 따라서 노선 획정 시, 약간 우회하더라도 되도록 높은 산지는 배제하였고, 어쩔 수 없다면 터널을 뚫거나 포아리를 틀면서 산록을 휘돌아 넘는 방식을 택하였다. 경인철도의 경우가 전자에 해당한다. 터널로 성현을 넘기보다는 산각 절개로 간단히 해결되는 원통이고개를 택한 것이다. 철도의 부설은 경인로에도 영향을 미쳐 신작로 노선이 원통이고개길을 따르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경인로 노선이 1899년에 개통된 경인철도와 거의 나란히 놓이게 되었다(그림2).

일제시기의 경인신작로는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짧은 구간을 제외하면 오늘날 46번 국도와 대

부분 일치한다. 경인철도를 계기로 급성장한 영등포는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이후 시흥군의 군청소재지가 될 정도로 큰 시가지를 이루었다. 철도 부설 이전 영등포리의 중심 취락은 영등포 시장역(5호선 전철)에서 영등포교회 일대까지 형성되어 있었고, 후에는 그 북쪽으로 확대되었다가 경인철도 부설 이후 현 영등포역 앞의 삼거리를 중심으로 영등포3가동에 신흥 시가지가 형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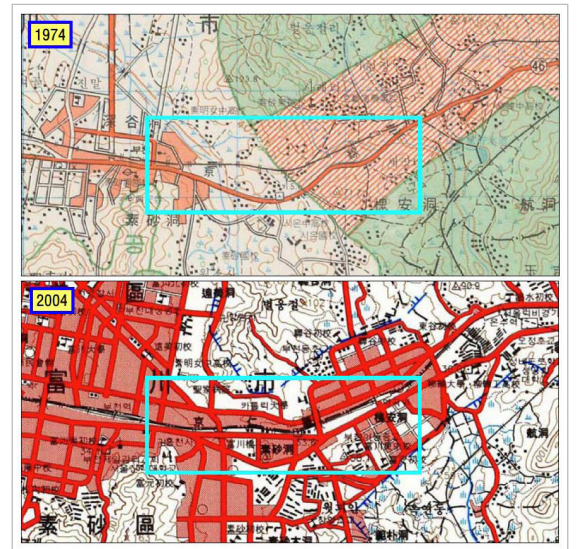


그림3. 소사 일대의 경인로 변화

지금은 영등포역 앞의 큰 길이 경인로(46번 국도)이지만 그 북쪽의 첫 번째 골목길, 즉 신세계백화점이 접한 길이 일제시기의 경인로이다. 이 길은 동쪽으로 영등포로터리와 신길삼거리를 경유, 노량진로를 따라가다가 한강을 건너 용산으로 연결되었다. 한편 반대편으로는 신세계백화점에서 서쪽으로 가다가 영등포화교소학교를 사선으로 질러 경부철도를 넘어 도영로(모랫말길)



그림4. 현재의 경인로(왼쪽)와 일제시대의 경인로(오른쪽, 동수로) 출처:www.map.naver.com



원통이교개



소사구청 앞 경인옛길로



부개사거리, 현재 경인로에서 동수로 들어가는 길 1



부개사거리, 현재 경인로에서 동수로 들어가는 길 2

로 접어들었다. 이어서 구립모랫말경로당 앞을 지나 신도림역입구교차로-신도림교·신도림태영데시아파트·구로동롯데아파트를 경유, AK플라자 북쪽에서 경인철도를 넘어 46번 국도(경인로)와 다시 만난다.

46번 국도는 고척교·개봉동·오류동·온수동을 지나 부천시 역곡역까지 이어진다. 역곡역 조금 못 미친 지점에서 신작로는 남쪽으로 살짝 휘어졌다가 새장터2로앞에서 다시 46번 국도와 만나고 이어서 곧 다시 남쪽으로 휘어져 소사구청을 경유한 후 소사삼거리에서 46번 국도로 연결된다(그림3). 이곳 소사구청 앞길이름이 ‘경인옛길’로 1974년(1969년 측도)에 발행된 지형도에는 이 일대의 일제시기 경인로 노선이 잘 나타난다.

소사삼거리부터 약 5km 떨어진 부개사거리까지 일제시대의 경인로는 현재의 경인로를 따라간다. 그러다가 일제 때의 경인로는 여기서 남쪽으로 꺾여 동수로로 접어든다. 부개초등학교·동수초등학교·부일여중으로 이어지는 옛길은 동수로가 끝나는 동수역사거리(인천1호선)에서 다시 46번 국도로 이어진다(그림4).

위의 소사구청 앞길(‘옛경인로’)과 동수로는 일제시기 주요 신작로의 노폭을 짐작케 해주는 의미를 지닌다. 두 구간은 당시의 도로 형태를 그나마 유지한다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후반 이후 경인신작로를 다시 정비할 때 곡선으로 난 두 구간은 노선 단축을 위해 그 옆에 새로 직선로를 뚫음으로써 오늘날까지 옛 노폭을 간직할 수 있었다. 경인로는 1917년에 1등도로로 정비되는데, 1등도로는 1914년에 제정된 ‘도로규칙’

에 따르면 유효 노폭이 4칸 이상이었다.

오늘날 일반도로의 경우 1차선의 노폭 규정은 3~3.5m이고, 인도와 중앙선을 노폭에 포함하면 왕복 2차선 도로의 노폭은 12m 내외이다. 일제시대의 1칸은 약 1.818m이었으므로, 이로 환산하면 1910년대 1등도로 경인로의 노폭은 7.3m 이상이었다. 아직 인도가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았던 1910년대 경인로의 노폭은 오늘날 인도를 제외한 왕복 2차선 도로 폭과 대등하다. 오늘날에도 시골에는 인도가 없는 2차선 도로가 많다. 이를 연상하면 될 듯하다. 동수역사거리에서 잠시 오르막이 시작되는 듯하더니 넘는지도 모르게 이내 원통이교개를 넘는다. 조선시대에는 이곳부터가 인천 땅이었다.

내판과 함께 남쪽 방향으로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나아있다. 경인로는 여기서부터 해발고도 30~50m 사이의 작은 구릉지 능선을 따라 남동경

찰서 남벽(南壁) 길까지 산길로 이어진다.

지금까지 4회에 걸쳐 인천의 옛길을 경인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개항 이후 다른 어떤 도로보다 먼저 근대화가 추진된 점에서 경인로는 한국 교통사의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개항 이후 경인로 노선의 변경은 서울-인천 간 지역구조 형성의 전개과정을 논의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며 이 지역구조의 변화, 또는 재편은 인천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또한 개항 이후 경인로 외에 경인철도와 증기선, 그리고 자동차의 도입은 서울-인천간 공간 소통에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 이는 경인지역의 근대 또는 발전으로 이어졌지만 분명 탈지역성의 시작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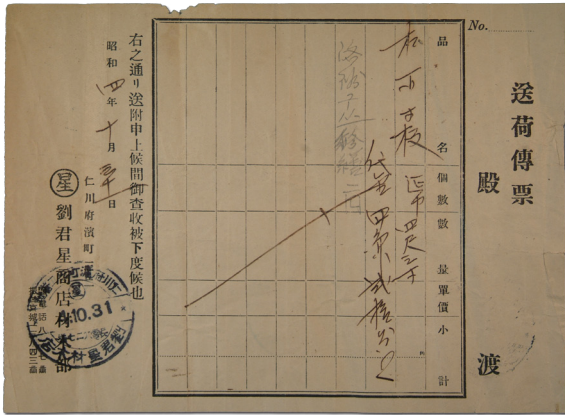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김종혁



그림5. 일제시대 1등도로의 노폭(동수로)

소장유물

유군성 송하전표(送下傳票)



유군성 상점 송하전표

이 유물은 1929년 10월 31일에 유군성 상점 목재부에서 폭이 4척 3촌(129cm)인 송판(松板)을 판매한 내용이 기록된 송하전표이다. 가로 17.9cm, 세로 13.4cm의 양지(洋紙)에 기본적인 양식을 미리 인쇄해 놓고 내용과 날짜 등은 수기로 기재하게 되어있다. 가장 우측에 '송하전표(送下傳票)'라는 문서의 제목이 인쇄되어 있는데 송하전표란 판매자가 물품을 구매자에게 배송하면서 발급한 배송증명서이다. 다음으로 '전(殿)', '도(渡)'라는 글자는 수취인과 배송인의 성명을 기재하는 곳이지만 이 문서에서는 빈칸으로 남아있다. 그 좌측으로 세로 10칸, 가로 5칸의 표를 두었는데 품목, 개수, 수량, 단가, 소계

등으로 구분하여 배송하는 물품의 정보를 알 수 있게 하였다. 표의 좌측에는 '우측의 표와 같이 송부하오니 잘 살펴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쇄되어 있고, 그 옆으로 날짜와 판매자인 유군성 상점 목재부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실제 발급한 날짜를 확인하는 소인을 찍어두었다.

송하전표의 발행처인 유군성 상점은 목재부가 1902년 인천 빈정(濱町, 현 사동)에서 영업을 시작하였고, 이어서 1924년 정미부가 인천 화정(花町, 현 신흥동)에 문을 열었으며 1932년에는 조선취인소미두취인원 유군성 취인점을 인천 해안정(海岸町, 현 해안동)에 개업하였다. 유군성 상점의 전표나 광고지 등을 보면 동그라미 원안에 유군성 이름의 마지막 글자인 '성(星)'을 공통마크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938년 인천의 조선사람 중 최고 부자로 유군성을 뽑을 정도로 유군성 상점은 1930년대 전성기를 누렸다. 특히 유군성 정미소는 일본인들이 독점하고 있던 정미업계에 뛰어난 최초의 정미소로써 크게 번창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일곱 번의 크고 작은 화재를 맞아 목재부와 정미부의 상점이 불타는 등 큰 타격을 받았으며, 1935년 이후에는 목재업과 취인점 만

을 운영하였고 미두의 실패로 사업이 차츰 기울어져 일제강점기 말에는 상점문을 닫게 되었다.

유군성(1881?~1947)은 강화에서 태어나 어린 나이에 인천으로 건너온 인물로 일제강점기라는 악조건에서 빈손으로 생선장사를 시작하여 목재업, 정미업, 미두취인점 등을 경영하며 인천의 큰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모은 재산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아낌없이 베풀었던 것으로도 유명한데 정미소에서 쌀을 훔친 가난한 여공을 도와 주고, 학교 설립에 많은 돈을 기부하면서 한사코 그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거부하였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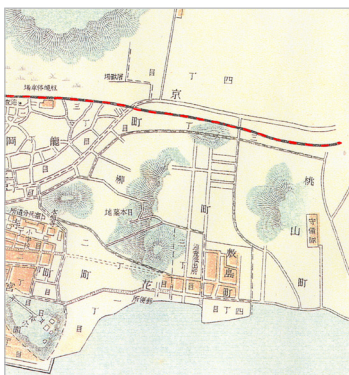
이렇듯 유군성은 일제강점기 인천 경제사에 큰 영향력을 끼쳤고, 자선사업가로서 덕망이 높았던 인물이었음에도 그와 관련한 자료나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이러한 실정에서 이 문서는 당시 경제행위의 일면을 살필 수 있고, 나아가 유군성이라는 인물을 파악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는데 가치를 지닌다 하겠다.

전시교육과 김래영
삽화 홀날린(주유진)



인천, 도시탐사 ⑦

도원동 1 - 복사꽃이 피어 도원(桃園)이라...



1960년대 창영동 건물목

에는 인천부 모모야마쵸우(桃山町)와 경기도 부천군 다주면의 경계, 지금은 중구 도원동과 남구 송의동의 경계에 해당한다. 조선시대에는 인천 도호부 관아에서 제물포로 향하는 유일한 길목이자 제물포 해안에서 내륙으로 들어오는 관문이어서 군사요충지였다. 개항 이후 적은 수의 조선인들이 거주하며 논과 밭을 일구고 있었으나, 점차 일본인 소유의 토지가 늘어가기 시작했다. 개항장에서 이주하여 이곳에서 농업에 종사하던 나카노 기요요시(仲野喜代吉)가 산기슭에 복숭아 과수원을 만들면서 산의 이름이 모모야마(桃山)가 되었다. 이로 인하여 1905년 을사늑약에 따라 통감정치가 시작되면서 개항장과 그 주변 지역의 행정구역을 확정할 때 도산정이라는 일본식 지명이 붙게 된 것이다. 지금의 도원동(桃源洞)이라는 행정동명도 여기서 비롯되었다. 이후 1907년 인천의 부호 히라야마 마츠타로(平山松太郎)가 도원동에서 송의동에 이르는 24,000평의 부지를 매입하여 사과나무를 비롯한 각종 유실수를 재배하면서 이 일대는 봄부터 가을까지 과수원의 꽃들이 만발하여 개항장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의 휴양지로 각광받았다고 한다.

한편 이곳에는 일본병참사령부 소속의 수비대가 주둔하기도 하였는데 일본병참사령부는 러일전쟁 당시 만주로의 군수물자 보급을 담당하던 부대였다.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인천에 계속 머물고 있었는데 이는 만주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을 지원하기 위해서였다. 일본 병참사령부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군수창고의 방어를 담당할 수비대를 인천에 주둔시켰고

1905년 6월 인천수비대의 사격장 부지로 인천군 다주면 여의실 즉 지금의 도원동 동쪽 일대의 땅을 제공해 줄 것을 조선 정부에 요청하였다. 인천감리서에서 이를 검토하여 조선인과 외국인의 경작지가 많고, 군사관련사항이라 허가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정부에 올렸다. 대한제국 외부(外部)에서는 이를 허가하지 않을 수 없으나 문제가 있다면 일본병참사령부와 교섭할 것을 지시하였고, 결국 이곳에는 일본군 수비대 1개 중대와 그 사격장이 들어서게 된 것이다. 일본군 수비대와 사격장은 1910년대 초반까지 이곳에 위치했던 것으로 보인다.

개항장의 외곽에 위치한 도원동 일대에 일본인 과수원이 조성되고 병력이 주둔하게 되면서 일제강점기 식민도시 인천을 건설함에 있어 배후 지원지역으로 필요한 땅이 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조정 당시 인천부에 속하게 된 것이다.

전시교육과장 배성수

분관소식 – 송암미술관

묵로 이용우(墨鷺 李用雨) 십장생도(十長生圖)



십장생도, 이용우, 건본채색, 92.0x118.7cm

송암미술관에서는 하반기 특별전 <근대 전통회화의 사제동행>을 10월 5일(2013년 2월 17일

까지)부터 전시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근대 한국 전통화단의 양상을 사제관계를 통해 조명해보고자 마련되었다.

근대 전통회화는 급변하는 사회의 물결 속에서 전통을 계승하고 외래의 다양한 영향을 수용하며 발전해 나갔다. 장승업을 필두로 조석진과 안중식이 근대회화의 기초를 다졌고, 이들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화풍이 창출되면서 한국 근대화단이 형성되었다. 전시회에서는 이러한 전통과 근대의 분위기를 함께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이 다수 출품되었다. 그 중 묵로 이용우(墨鷺 李用雨, 1902~1952)의 십장생도(十長生圖)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용우는 서화미술회 1기생으로 입학(1911)하여 전통화법을 배우고 이상범, 노수현, 변관식과 1923년 동연사(同研社)라는 연구모임을 만들어 전통화법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한, 시대양식과 개인양식을 조화롭게 그린 화가였다. 본 작품은 이런 그가 화가의 일생을 마감한 1952년 형님 내외의 건강과 안녕을 빌면서 그린 그

림이다.
해, 산, 물, 돌, 구름, 소나무, 불로초, 거북이, 학, 사슴으로 구성된 십장생도이면서 구도적으로는 전통적 십장생도와 판이하게 달라 이채를 띤다. 색채 또한 진채(眞彩)를 전혀 쓰지 않고 담채(淡彩)로만 칠하여 수채화와 같은 분위기를 자아낸다. 의미면에서도 십장생의 10가지 소재 가운데 소나무, 거북이, 학, 사슴이 쌍을 이루고 있어 길상(吉祥)과 함께 부부애를 내포하는 점이 흥미롭다. 그림 전체를 통해 기존과 다르게 재창출된 이 십장생도는 전통의 틀에 머물지 않고 시대를 앞서나가려 한 작가의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정신을 엿볼 수 있어 주목할만하다.

- 전시제목 : 근대 전통회화의 사제동행
- 전시기간 : 2012년 10월 5일 ~ 2013년 2월 17일
- 전시장소 : 송암미술관 기획전시실

송암미술관 연구원 전민숙

분관소식 – 검단선사박물관

제3회 어린이 문화재 그리기 대회



검단선사박물관은 제3회 어린이 문화재 그리기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2012년도 제3회 대회는 8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인터넷 접수를 받고,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현장접수 겸 작품접수를 받았다. 이번 대회에는 1학년 95명, 2학년 114명, 3학년 54명, 4학년 40명, 5학년 13명, 6학년 16명이 작품을 출품하였다.

이들 제출된 335명의 작품을 대상으로 9월 17일 검단선사박물관 1층 제2전시실에서 공개 심사를 진행하였다. 출품 작품에 대해 기본사항(40%), 표현력(30%), 창의력(30%)의 평가항목을 갖고 개별 심사(1차) 및 소조별 심사(2차), 전체심사(3, 4차) 등을 병행하여, 최우수상 1명, 우수상 3명, 장려상 6명 등 총 100명의 입상자를 선정하였다.

시상식은 9월 25일 2시부터 선사박물관 야외행사장에서 전상주 인천시문화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내빈 20여명, 수상 어린이 39명 등 150명 가량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이뤄졌다. 시상식 후 우수작품 전시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들 작품들은 다음해 대회까지 1년간 박물관 1~2층 연결복도에 전시된다.

검단선사박물관 박용운

상	수상자	학교(학년/반)	작품제목
최우수상	조성윤	옥련초등학교(1/6)	빗살무늬토기를 만들어라!
	김혜원	불은초등학교(6/1)	아름다운 명예의 죽음
우수상	이승연	인천창신초등학교(3/1)	생김새는 다르지만 우리는 같은 민족
	김한섭	인천창신초등학교(2/2)	신석기인들의 생활
장려상	조수영	옥련초등학교(2/5)	선사시대 족장과 인터뷰
	정다윤	인천창신초등학교(4/1)	와!!! 즐거운 선사시대 생활
	김현지	인천창신초등학교(5/2)	우리 동네 선사박물관
	주혜민	인천창신초등학교(4/5)	우리 바뀌실래요?
	정한결	인천학익초등학교(1/4)	선사시대의 물고기 잡기
	최승규	김포유현초등학교(3/백합반)	멧돼지 사냥

석남 타계 3주기 추모전 <李慶成, 그 사람> 개막



박물관 초대관장을 지낸 석남 이경성 선생 타계 3주기를 맞이하여 마련한 추모전 <李慶成, 그 사람>이 11월 27일 선생의 타계일에 맞춰 개막했다. 이경성 선생(1919~2009)은 인천시립박물관 초대관장을 비롯하여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여러 박물관 및 미술관 관

장을 역임하였고, 미술평론가이자 미술사학자로서 한국 미술계를 이끌어오다 지난 2009년 미국 뉴저지에서 타계하였다. 이번 추모전에서는 이경성의 유품 및 작품을 통해 이경성의 삶과 작품 세계를 조명하고, 1946년 인천시립박물관 최초의 전시를 재현함으로써 박물관 설립정신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전시는 내년 1월 27일까지 계속된다.

제11회 인천평생학습축제 참가

인천광역시립박물관은 2012년도 제11회 인천평생학습축제(2012.9.21~9.22)에 참가하였다. 인천광역시 평생학습관 부지에 2개의 부스를 제공받아 탁본 체험 '탁탁탁 두드려~ 본본본을 뜨자', 100년 전 인천을 체험해볼 수 있는 '응답하라! 인천 1912'를 운영하였다. 또 근대 체험의 부대행사로 대형보드게임 '100년 전 온천여행,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를 총 6회 진행하였다. 인천역에서부터 주사위를 굴러 여러 가지 미션과 벌칙을 수행하고 온천을 위한 최종목적지인 부산역까지 도달하는 팀에게 상품을 주는 게임으로 시민들의 많은 참여가 있었다. 평생학습축제에 참여한 인천 시민들이 박물관의 한정된 공간을 떠나 또 다른 곳에서 박물관에 대해 알아보고 경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타박타박 인천 걸어보기



박물관 도보답사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요구에 발맞추어 올해 가을 성인 도보답사 프로그램 <타박타박, 인천>이 신설되었다. 타박타박, 인천은 일상에서 지나쳐왔던 인천의 자연·역사·문화의 공간적 성격을 학예사의 안내와 설명으로 다시 바라보고 이를 산책이라는 소소한 활동을 통해 확인해 보자는 강좌이다. 10월 14일 첫 번째 답사에서는 근대기 개항장 인천에서 서울로 가는 신작로, '경

인가로'를 따라가 보았다. 긴담모퉁이길 신흥초등학교에서 시작하여 싸리재, 배다리, 쇠뿔고개를 거쳐 우리나라 최초 철도인 경인철도 기공지까지 4시간 여를 걸었다. 2013년에는 여러 답사코스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비슷한 성격의 도보답사가 유행하는 요즘 박물관이 제시하는 새로운 답사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한·러 국제학술회의 개최



2012 인천광역시립박물관 한·러 국제학술회의가 지난 11월 2일 개최되었다. 이번 학술회의는 "한·러 교류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인천의 역할"을 주제로, 한국과 러시아 교류에서의 인천, 초대 러시아 상주 공사 이범진 일가의 삶과 외교관계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구성되었다. 국제학술회의에는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 역사연구소의 세르게이 레베데프(Sergey Lebedev) 교수, 일본 리스케이칸대학의 이시카와 료타(石川亮太) 교수 등 국외 연구진을 비롯하여 이재훈, 반병

률, 윤상원, 조재곤 교수 등 국내 연구진이 함께하는 국제학술행사로 진행되었으며, 6개의 주제발표가 있는 후 종합토론을 끝으로 회의를 마무리 지었다.

박물관 자원봉사단 3차 문화유적답사



박물관 자원봉사단은 지난 10월 13일 토요일 경상북도 영주시로 문화유적답사를 다녀왔다. "자연을 담은 선비의 고장 속으로"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답사에서는 소수서원과 선비촌, 소수서원 박물관, 부석사, 무성마

을 등을 둘러보았다. 문화유적에 대한 해설은 영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선생님들이 맡아주셨으며, 영주의 유교문화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내년 답사는 "세계문화유산 찾아가기"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하반기 박물관대학, 인문학강좌 운영

성인일반 대상 교육프로그램의 하반기과정이 9월부터 시작되었다. <제14기 박물관대학> 하반기과정은 9월 7일부터 10월 26일까지 "미로美路 찾기II—현대문화 속 미술교류"를 주제로 브랜드, 한글, 건축, 과학기술, 대중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이론강의와 문화유적답사가 총 7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와 공동주최하는 <2012 인천시민 인문학강좌> 하반기과정은 서울로 들어가는 길목에 위치한 인천의 지정학적 특성으로 인해 19세기 후반 근대제국의 무력(침략)과 문화(문명)라는 양면과 만난 인천 지역사회, 지역민을 살피는 8개 강좌를 마련하였다. "근대제국과 만난 인천: 충돌과 변화"는 9월 11일 개강하여 12월 4일까지 운영된다.

제1기 상상공작소 활동



청소년 교육프로젝트 <제1기 상상공작소>가 10월 20일 '내가 인천의 역사다' 전시회를 마지막으로 2개월 여에 걸친 교육과정을 모두 마쳤다. 박물관에서 진행한 첫 번째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으로 인천시내 고등학교 1학년 학생 23명과 대학생 멘

토 8명이 참가하였다. 정규활동은 8월 18일 상상선언으로 시작하여 9월 15일 전시회, UCC상영회까지 5주간 20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인천의 역사·문화콘텐츠를 UCC로 제작하는 창작워크숍을 주요 내용으로 몸놀이, 지역이해를 위한 시청각교육, 전시관람, 도보답사, 조별토론과 발표, 전시기획 등 다양한 커리큘럼을 구성하여 참여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마음 창에 시선 담기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거둔사지 삼층석탑(居頓寺址 三層石塔)

절집 주인은 여전히 만행(萬行) 중인가 보다.

- 거둔사址(폐사지에서) -

세속의 경계에서
오랜 세월 동안 그 자리를 품고 있던
천년의 고요가
걸림 없는 삼상한 가을바람에
풍경처럼 잔잔히 흔들린다.

기다란 띠를 가진 게으른 구름 하나
한 짐 지고 온 나그네의 곤고한 번뇌 그림자를
가끔씩 품었다 놔다가 할 뿐.
찾는 이 떠나는 이 간섭하는 이 없고
우북우북 자라난 풀들만 녹빛을 주체 못 한다.

폐허의 무게에 이끼조차 뭉개어진
*주초석(柱礎石) 위로 가을햇살이 파고들며
몇 칸 기둥을 세우려 안간힘을 다하지만
새것을 기다리는 건조한 세상에서는
뚝는 이가 아무도 없다.

다만 아직도 어디선가 *만행(萬行) 중인
절집 주인을 찾으려
길 떠나는 갈바람 어깨에
천연덕스럽게 얹혀진 은행잎이
제 몸 흔들며 동행한다.

*주초석(柱礎石) : 건물의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해 기둥 밑에 괴는 돌

*만행(萬行) : 참선 안거 후 선방을 떠나 전국을 떠돌면서 중생의 삶과 세상을 직접 경험하는 것

글 · 사진 조택환

전시 · 행사 · 교육 일정

| 〈李慶成, 그 사람〉 기획특별전 |

기간 2012년 11월 27일 ~ 2013년 1월 27일

장소 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

내용 2012년 인천문화인물 석남 이경성의 삶과 예술을 조명하는 추모전

| 2013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 한마당 |

기간 2013년 2월 24일 오후 1~7시

장소 박물관 우현마당

내용 2013년 박물관 정월대보름 민속행사로 달집태우기 등
각종 민속놀이 체험프로그램 운영

| 박물관으로 떠나는 음악여행 |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 오후 4~5시 / 박물관 1층 석남홀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12월 9일 해피 바순(바순앙상블)

12월 23일 가야금앙상블 담은(국악실내악)

| 우리 가족 박물관 가는 날 |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오전 10~12시, 오후 1~3시 / 박물관 3층 해넘이방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12월 22일 다시 시작! 2013년 뱀띠해+벽시계

1월 26일 홈페이지 추후 확인

2월 23일 홈페이지 추후 확인

| 박·장·대·소, 토요일! |

기간 9~12월 둘째 주 토요일 오전 10~12시

장소 박물관 2층 세미나실, 3층 해넘이방, 공예실, 서화실

주제 박물관 명탐정-전통 공예의 비밀을 밝혀라!

신청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 박물관 시민강좌 |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후 2~5시 / 박물관 1층 석남홀 / 선착순 입장

12월 1일 그림으로 보는 조선의 무당

1월 5일 홈페이지 추후 확인

2월 2일 홈페이지 추후 확인

| 인천시민 인문학강좌(하반기과정) |

9~12월 격주 화요일 오후 2~4시 / 박물관 1층 석남홀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청강 병행

12월 4일 개항 이후 일본식 지명의 생성과 확산

창간일	2009년 3월 1일
발행인	인천광역시립박물관장
기획·편집	전시교육과 안성희 자원봉사자 구자인혜, 김미경, 정효숙, 조택환
표지사진·제호	조택환·근정 이태용
디자인·인쇄	DNP KOREA

인천광역시립박물관
Incheon Metropolitan City Museum

행복한 박물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청량로 160번길 26 | Tel 032 440 6750 | <http://museum.incheon.go.kr>

石南 타계 3주기 추모전

李唐成, 그 사람

2012. 11.27 ▶ 2013. 1.27

인천광역시립박물관 기획전시실

